

# 컨트롤타워 없는 발전기금, 단과대학 힘만으로 역부족

## 기부금 발전 방안

안나연 기자 na@knu.ac.kr  
장유미 기자 yummmy0825@knu.ac.kr

유입을 돋는다.  
경영대학 박상우 행정실장은 “단과대 동문회, 학과 동문회를 통해 동문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자발적인 기부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스승의 날 캠페인을 개최해 사회적으로 성공한 동문 및 교수님들을 초대한다”고 말했다. 문과대학 행정실 또한 “각 학과 교수님들이 동문캠페인을 주최해 졸업생, 동문인 교수 등에게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학대학도 마찬가지다. 약학대학 김동철 행정실장은 “지난 달 20일 모교방문 캠페인을 통해 동문들의 기부를 유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과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 기금 유치에 한계가 있다. 경영대학 박상우 행정실장은 “단과대 행정실의 경우 기금 모금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교수진도 교육과 연구에 보다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모금을 유도하지는 못한다고”고 말했다.

이처럼 기금 모금을 위한 전문 인력이 부재한 단과대 행정실은 ‘단과대 설립 및 십주년 기념’, ‘새로운 건물 증축’ 등 특정한 계기가 생길 때만 기금유치를 위한 캠페인을 기획한다. 우리학교 대외협력처 발전기금팀(기금팀) 역시 이와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단과대학은 우선순위가 사무행정과 교육·연구”라며 “전문성이 없어 기금 모금으로 일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산하의 기부환경 개선을 위해 설립된 한국모금기협회 황신애 상임이사는 “모금의 주체는 대학이 맞지만 과정이 투자 유치와 협력해 인간관계기술 등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그러나 현재 다수의 대학은 이러한 역량이 부재한 직원이 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상임이사는 “대학 내에서는 빈번한 인사이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필요한 모금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는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대학은 지난해 행정실이 ‘설립 5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해 약 25억 7,000만 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이는 간호과 학대학의 신축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 간호대학 행정실은 “작년에 단과대 이전과 50주년 사업을 진행해 동문들이 많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는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문인력 없는 단과대  
적극적 모금 유도 어려워**

우리학교 단과대는 발전기금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문의 기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홈커밍데이’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동문 네트워크의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금 강조했다.

“현재 우리 단과대학 리모델링 할 돈도 없다. 공부하는 환경이 열악해서 학생들의 불만이 많은 것은 알지만 외국어대학 발전기금 만으로는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국어대학이 학교로부터 받는 예산을 매년 1,500만 원씩 10년간 감축하고 이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 ‘가불’했다.” 외국어대학 송해경 행정실장은 발전기금 부족으로 리모델링이 어려웠다는 점을 말했다. 외국어대학은 누적 발전기금 약 4억 9,700만 원으로 23개 단과대학 중 5번째로 낮다.

반면으로 한의과대학의 누적 발전기금액은 약 81억 4,700만 원으로 우리학교 총 23개 단과대학 중 1위다. 2위인 의과대학·의학 전문대학원의 누적 발전기금액은 약 59억 6,400만 원으로 한의과대학과 약 20억 가량 차이난다. 한의과대학은 누적된 발전기금을 바탕으로 ‘본종학 교설’ 등 특정 교실을 지원해 연구비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한의대 차원의 장기연구를 이어가는 데에도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한 간호대학은 지난해 행정실이 ‘설립 5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해 약 25억 7,000만 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이는 간호과 학대학의 신축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 간호대학 행정실은 “작년에 단과대 이전과 50주년 사업을 진행해 동문들이 많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한 대안은 제시하는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은 학생들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며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전기금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간호대학은 지난해 행정실이 ‘설립 50주년 기념 사업’을 진행해 약 25억 7,000만 원의 기금을 모금했다. 이는 간호과 학대학의 신축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됐다. 간호대학 행정실은 “작년에 단과대 이전과 50주년 사업을 진행해 동문들이 많이 동참했다”고 밝혔다.

**전문인력 없는 단과대  
적극적 모금 유도 어려워**

우리학교 단과대는 발전기금 유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동문의 기부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홈커밍데이’와 같은 캠페인을 진행한다. 또한 동문 네트워크의 유지를 통한 지속적인 기부금 강조했다.

## 기부금 목표액 '1,000억' … 체계화된 모금 계획부터 수립해야

설자연 기자 jy0622@knu.ac.kr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학교 기부금은 약 182억 원으로 전체 재정수입의 약 3.5%를 차지한다. 우리학교는 고려대, 연세대, 중앙대에 이어 사립대학 중 4번째로 기부금이 많다. 하지만 고려대 약 415억 원과 약 연세대 약 328억 원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 2월 학동교부연천회에서 발표된 ‘재정·인프라 구축 계획안’에 따르면 재정 악화를 해결하고 재정구조화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부금 확대’를 선택했다. 현재 수준의 약 5배에 달하는 1,000억 원을 목표로 잡고 기부금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학교는 ‘경희 라이언 일만인 클럽’과 ‘경희 라이언 서포터즈’ 등 기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는 매월 만 원 이상의 금액을 자동으로 기부하는 방식으로 소액 기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00만 원 이상 기부했을 때 청운관 로비에 이름을 남겨주는 ‘글로벌로스터스트리거’도 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기부 캠페인을 살펴보면

소액 기부를 중심으로 진행해 거액 기부금 유치를 위한 모금 캠페인은 미비하다. 발전기금팀 김동선 부처장은 “일반 발전기금에서 거액 기부는 희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모금 전략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대학모금가포럼 박종배 회장은 “대학이 기부금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모금조직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모금 목표와 기간을 설정해 대학부분, 단과대학, 동문이 서로 협력해 전략적인 모금 캠페인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몇몇 여 ‘모금에 대한 명분이 확실해야 한다’며 “기금을 가지고 어떤 교육과 연구를 진행할 것인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사용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 계획은 기본**

실제로 고려대의 경우 대학부분 차원에서 학교 방향성에 맞는 중장기 기금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에 맞춰 단기 계획을 세운다. 지난 2015년부터 고려대는 거액의 기부금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한 1